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 순항...나주시 산단 분양도 훈풍

광주·전남 에너지 동력산업의 중심이 될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순항하면서 산단 분양 훈풍으로 이어지는 등 지역 경제에 온기(溫氣)가 전해지고 있다.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은 나주 혁신도시와 혁신산단을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 500개 이상 유치, 전문 인력 3000명 이상 양성, 일자리 3만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하는 광주·전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최종 반영된 뒤 전국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나주 입주 문의가 잇따르면서 혁신산단 분양률도 이달 들어 60%를 육박하고 있다.

나주의 도시 경쟁력도 상승해 전국 75개 기초 시(市) 경쟁력을 평가한 '2017 한국지방브랜드 경쟁력지수(KLBCI)조사'결과, 전남도에 견주 35계단이나 된 종합 17위를 기록했다. 전남에서는 순천·여수에 이은 3위다. 투자 지원이 잘 이뤄지는 상위 10개 도시에 꼽혔고 수도권과 영남권 외 호남지역 시(市) 중에는 유일하게 7위에 올랐다.

나주시는 이같은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취업지원 정책을 마련,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미래산단 분양률 60% 육박 호조
도시경쟁력 35계단 뛰어 17위로
투자 지원 잘되는 상위 10개 도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박차

■ 기업 300개 유치 목표, 96.3% 달성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11월 22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제 3차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식(MOU)에 참석, 총 34개 기업(혁신도시 17개, 혁신산단 17개)과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나주시는 민선 6기 목표인 기업 300개 유치를 목전에 뒀다.

나주시는 지금까지 혁신·신도산단과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289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 기업 유치 목표의 96.3%를 달성했다.

이들 기업 중 169개 기업이 분양 계약을 체결해 투자 금액 규모도 5200억원에 달하고 4983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기업 유치 목표(3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미운오리' 혁신산단, 에너지밸리 핵심 거점으로

나주 혁신산단은 예전 막대한 투자비용과 각종 법적 분쟁이 오고가는 등 나주시 재정위기를 초래했던 옛 미래산단으로 민선 6기 새 이름으로 바뀌며 에너지밸리 조성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했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현재 혁신산단 내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은 124곳으로, 91곳은 분양 계약까지 체결했다. 산단 분양률은 59.4%로 60%를 육박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지면서 투자 실현율도 73%로 상승했다. 이들 기업들의 투자금액은 4174억원으로 고용 예상 인원은 2311명으로 파악된다.

이미 투자 1호 기업인 보성파워텍 등 31개 기업이 준공을 마치고 제품 생산에 나선 상태로 전남도에서는 전국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면서 제 2산단 추가 확장 여부를 검토중이다.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은

- 에너지 기업 500개 이상 유치
- 전문인력 3000명 이상 양성
- 일자리 30000개 이상 창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전경. 광주·전남 에너지 동력산업의 중심이 될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순항하면서 지역 경제에 온기(溫氣)가 전해지고 있다.

■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주시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치 전담반을 꾸려 운영중이다.

전담반은 투자협약 기업을 찾아다니며 기업별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제도와 입주 기업들이 받는 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기업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

당장, 나주시는 내실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 전남도와 공동으로 투자 실현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조금(입주·시설·고용보조금·임차료 및 투자이행보증증권수수료 등)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혁신산단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재산·법인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전남도·한전과 혁신산단 입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매월 한 차례 기업별 건의 사항을 수렴,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전의 지원방안도 눈길을 끈다. 한전은 나주시 이전 기업을 위해 에너지밸리 협약기업 신유도에 따라 2.5~6% 대출이자감면, 에너지밸리 투자펀드 조성 등 자금 지원 혜택을 마련했다.

한전은 혁신산단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혁신산단 내 생산된 전력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제한 경쟁 구매 물량을 최대 20%까지 배정하고 있다.

나주시는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혁신산단 내 주요 진·출입로에 CCTV를 설치해 시설 안전 및 방범 시스템을 마련했고 매달 두 차례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운영, 자질없는 인력 공급에도 힘을 쏟고 있다. 통근 셔틀버스 운영, 숙소, 편의점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일자리지원센터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나주시는 취업 알선 기능에만 치중했던 기존 취업정보센터를 일자리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원스톱 취업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취업정보제공 뿐 아니라 구인·구직 만남의 날, 청년희망버스 운영, 이력서 접수 대행, 맞춤형 직업 훈련, 구인·구직 상담 등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맞춤형 직업훈련의 경우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 수요를 고려해 전기에너지 전문가(전기산업기사) 양성 및 전기 에너지시스템 전문가 과정과 세무·회계 등 전산 전문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면서 기업과 구직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 일자리 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7157명에게 직업을 알선, 273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민을 위한 양질의 나주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는데 총력을 쏟겠다"면서 "기업 유치 뿐 아니라 나주에 투자한 기업들을 위한 적극적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나주시는 지난 17일 10개 기업과 나주 혁신산단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산단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혁신산단은 분양률이 60%를 육박하며 에너지밸리 조성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는 원스톱 취업서비스를 제공, 기업과 구직자들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강인규(앞줄 왼쪽) 나주시장이 센터에서 진행되는 맞춤형 직업훈련장을 방문, 훈련생들의 훈련장면을 둘러보고 있다. (나주시 제공)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전국학교 옥상 2500곳 설치확정·관공서 설치

시공 사례
광주광역시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 서울 노원구청 / 운양동·소룡호텔 / 주월동·성관어린이집, 주월동·노스페이스건물, 문성동·안석동·농산물건물 / 내방동·내방교회 / 중흥동·진미식당옥상 / 쌍촌동·원도식육옥상, 임미지전통김치, 0당구장건물, 힐스테이트옥상 / 화정동·노다지건물 / 목포·한가죽식품, 순천·화이트옥상 / 월곡동·은누리마트 /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외 300곳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세계판매 1위 / 25년 출력보증

해가온에너지